

목포시, 서남권 관광거점 해양도시 위상 강화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지원부두 확보...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원 남·북·신항 등 시설 확충·인프라 정비 박차...항만기능 다각화

목포시가 서남권 관광거점 해양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서남권 해상풍력 지원부두 확보로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지원하고, 조선·철강·자동차 등 배후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여객부두를 확충해 항만기능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남항에는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친환경선박 산업은 침체된 지역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조선·해운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항 일대는 산지에서부터 수산물인 윈스톱으로 유통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목포수협을 비롯해 위판장, 가공시설, 냉동·냉장, 제빙·저빙, 보관창고, 유통공급시설 등 수산 관련 시설이 들어서며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가 조성돼 서남권 수산물과 관광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여항 기능의 복합 이전에 따른 혼잡도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편익 향상 등 목포항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 물양장 확충 공사를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신항은 서남권 경제 중심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신항은 목포의 작은 섬인 허라도 매립 공사를 통해 지난 2004년 12월 우리나라 최초 민자 유치 항만으로 조성된 서남권 연안 허브항으로 대중국 교역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에 시는 더욱 체계화된 서남권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육상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진입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된다.

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국내 최고의 입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배후단지 및 전용부두, 플랫폼터 등을 통해 해상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해경 경비합정을 목포에서 수리하게 됨으로써



목포시가 서남권 관광거점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연구단지 기반 구축 및 해양관광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남항 전경. <목포시 제공>

지역 수리조조소가 활성화되고, 수리조조 기술력 향상은 물론 조선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목포항 여객부두는 종전보다 더 확대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게 된다. 시는 여객선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목포항 여객부두의 접안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계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495억원을 들여 여객부두를 확충한다. 오는 2026년 준공될 계획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후화된 연안여객부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안시설을 보강하고, 대반동 조선투어 앞에서 신안비치호텔 구간 호안의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친수시설을 조성해 목포항의 연안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목포수협 이전 부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통한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개발된다. 목포시는 수협 위판시설 등이 복합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에 대비해 이전 부지에 수변공원 및 친수공간과 관광·상업·문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다.

박종률 목포시장은 "서남권을 총괄하는 해양의 도시이자 관광거점도시인 목포의 발전은 해양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살기 좋고 품격 있는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 전남체전 준비 착착...경기장 개·보수 막바지

내달 2일부터 24개 종목 열전 22개 시·군 3만5천여명 방문 14개 경기장 이달 중 마무리

다음달 완도에서 펼쳐질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개보수 등 막바지 개회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의 장이 될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와 제31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각각 5월2-15일, 5월24-26일 완도에서 열린다.

전남체전은 육상, 축구 등 24개 종목, 전남장애인체전은 골볼, 론볼 등 21개 종목이 30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 1만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2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완도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완도군은 '성공·참여 체전, 안전·경제 체전, 문화·관광 체전, 화합·희망 체전'이라는 목표 아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도에서 열리는 첫번째 대회인 만큼 도비와 군비 등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설운동장 안전펜스 및 육상 보조트랙, 경기장 관람석 등 설치하는 등



완도군은 다음달 전남체전을 앞두고 14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이다. 완도 축구전용구장. <완도군 제공>

14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80% 이상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고급 국민체육센터, 청해정,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농어민체육센터, 고급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 보수 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장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선수와 임원, 관람객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완도군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경기 용인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진도 농수산물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렸다.

진도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용인시 죽전1동 죽전체육공원에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 연다.



진도군이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죽전체육공원에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농수특산물 60여 종을 선보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 울금, 구기자, 홍주, 활전복, 반건조생선, 김, 미역 등 60여 가지 우수 농수특산물이 직거래 가격에 판매된다.

수도권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고객 대상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진도군은 이번 직거래장터를 시작으로 용인시와 매년 2회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특산물 홍보와 신선하고 품질 좋은 특산물 구매 기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용인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상생의 기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지원 확대...3년 3%→4년 4%

6월 중 대상자 확정

영암군이 오는 6월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이차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지원 이율을 연 4%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 기간도 4년으로 연장한다.

영암군은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경영 개선 등을 위해 5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실행한 경

우 3년간 연 3%의 이차 지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은 기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적용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지원 확정일부터 적용된다.

영암군은 5월 중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제팀(061-47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자율과 지원기간의 확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 '봄맞이' 기획전

내달 26일까지 최대 40% 할인

해남군 직영쇼핑몰인 해남미소가 다양한 봄맞이 기획전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해남미소에서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미소가득 봄나들이 캠핑대전'을 5월26일까지 연장한다.

기획전에서는 캠핑족들의 필수 먹거리 12개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삼겹살, 목살, 수제소시지 등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정육 제품과 청정바다의 전복과 급냉 왕

새우 등 해산물, 매운요리 치트키인 고추씨기름이다.

야외에서 더욱 편리한 캔에 담긴 묵은지, 옛 추억을 소환해줄 아이스 군고구마 등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들을 한자리에서 구매했을 수 있다.

또 민어, 병어, 참돔 등 반건조 생선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골라담어(漁) 반건조 생선 기획전을 비롯해 한돈 냉동목살 1+1 이벤트, 햇양파 할인판매 이벤트도 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현대삼호중,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과정 운영

내달 23일까지 선체조립과정 등

현대삼호중공업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어나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4일 첫 수업을 시작해 오는 5월 23일까지 20일간 회사 기술교육원에서 선체조립과정 13명, 선체도장과정 12명 등 총 25명의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올해 6개 과정 360여 명에 대해 훈련한다.

훈련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직무별 교육과정

에 따라 운영되며, 수료 후 용접 등 자격 취득도 지원한다.

훈련 수료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특례 인력전환 시 경력 요건을 6개월 단축해준다.

기업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부여,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훈련 참여 기간 정부에서 임금도 지원한다.

사업주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최저임금의 150%와 주휴수당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13억원의 예산을 확보, 부족한 교육시설 및 장비에 투자할 방침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해남군 햇물김 위판액 722억 '114억 증가'

친환경 인증부표 확대 등 김양식 활성화 지원 성과

해남군의 2022-2023년산 물김 위판이 종료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6일 송지 어란 위판장을 시작으로, 올해 4월19일까지 5개월여 물김 수확을 실시했다.

9607ha 면적에 19만2140여척을 시설한 해남산 물김은 전년 대비해 생산량은 0.2% 증가한 7만10t, 위판액은 전년보다 18.6% 증가한 722억원을 기

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말 고수온으로 인한 유염타락과 붉은갯병 발생의 영향으로 초기 생산량과 금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꾸준한 김발관리와 예찰 활동 강화로 예년 생산량을 회복했다.

위판액은 전년 608억원에 비해 114억원이 증가해 양식이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은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부표 확대와 김어망 및 육상채묘 지원 등 김양식 관련 13종 사업에 139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김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올해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 총 5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에 대한 지역 브랜드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해남김 가공과 고품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위판이 종료됨에 따라 생산이 끝난 어장 내 김양식 시설물을 조기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하반기 고품질 김생산에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실시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